

가정의 달 행사 소규모·비대면 진행

광주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가족사랑 통한 코로나 극복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온라인 편지쓰기도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정의 달 행사를 소규모,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대부분의 행사는 각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소박하고 따뜻하게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애가 더욱 각별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행사에 가족사랑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담아 진행하고 있다.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 각 가정 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천메시지 작성하기와 소독제 만들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구는 오는 23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광주사랑나눔공동체에서 가족 스토리텔링 및 예쁜 시험관 가족애자 만들기 등 '어디에 놓아도 예쁜 시험관 가족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남구에선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부모님께 영상편지 보내기'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간다.
북구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각 가정 내에서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주제로

스프레이소독제와 핸드워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광산구도 오는 20일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개인위생용품 만들기 등 소규모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각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9337)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속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규모 비대면 온·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5월 가정의 달에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0년 제48회 어버이날 기념·사랑나눔 행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사랑나눔행사 제48회 어버이날을 맞아 7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제48회 어버이날 기념 사랑나눔 행사에서 임택 동구청장이 효행자, 장한아버이, 효실천기관 종사자 등 22명의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지역 푸드플랜 사업' 공모 나주시·화순·장성군 선정

전남도 사업비 50% 국비 지원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 공모사업에 나주시와 화순군, 장성군 등 전남 3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한 안전·품질관리 사업은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공공급식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대상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해 지역 푸드플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의 50%인 국비 1억

5000만원을 나주에 4000만원, 화순 5000만원, 장성 6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업비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에 공급된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비롯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생산농가 교육과 소비자 체험 등을 위해 사용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더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 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빗물 저금통 사업 유치원 등 26곳 선정

광주시는 빗물을 모아 빗발 용수, 조경수로 활용하는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유치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6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설치비의 9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 건축물은 지붕 면적 1000㎡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면적 1만㎡ 미만, 학교는 건축면적 5000㎡ 미만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차별·배제 없는 돌봄안전망 구축"

광주의료원 설립 TF 구성
문화전당 운영 전부 위탁 필요
광주 AI 산업 메카 만들 것
군공항 이전 해결에 앞장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특별)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방식을 일부 위탁에서 전부 위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개발,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문화전당 건립을 제외하고는 5개 문화권 조성 등 광주시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차별과 배제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 발전과 지역 인재 발굴을 실현해가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4·15 총선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당선인은 7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이 당선인은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당선인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1대 국회에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뿐만 아니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20대 국회의 저지로 풀지 못했던 과제를 과감하게 진행시켜겠다. 국민의 뜻을 섬기고, 국민의 삶을 살리는 정치를 하면서 사회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가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의료진 출신 의원들 모두가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정치"의 첫

걸음으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 더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서 제도화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의지도 불태웠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광주의료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여기에, 광주의료원 설립 과정에 시민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에 기반한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의료원의 의료 혜택이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의료 인력 및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광주를 의료 복지 1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I산업과 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에

이어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 조성 중인 인공지능 직접단지의 조기완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이전 등 지역구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양시·도 정치인과 시민의 뜻을 모아 신속하게 풀어가겠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전 주변 지역의 국가 지원과 보상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용·복합단지, 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같은 지역경제의 동력 자원을 제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2년 KTX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비롯해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조기 신축 ▲광주송정역역사 증축 ▲금호타이어 이전부지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유치 ▲윤남~광주송정역 도시철도 2호선 지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광양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불법 투기 사전 차단

전남도는 7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1278필지이며, 지

정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초과한 토지 거래 시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행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제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